

## 프로라는 무게감, 그 너머의 따뜻함



김동은 선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선수로 성장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스물다섯 살의 김동은 선수는 지난해 프로 무대에 첫 데뷔했다. 데뷔 전 목표였던 ‘우승’을 프로 두 번째 무대인 군산CC오픈대회에서 일찌감치 이뤘다. 그의 이름 앞에 ‘준비된 신인’, ‘슈퍼 루키의 탄생’, ‘차세대 스타’와 같은 수식들이 따라 붙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부담이 커서였는지 우승 이후 치러진 몇몇 경기에서는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즌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는 예선에서 탈락하며 성적도, 마음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다시 평정심을 되찾은 것은 ‘예전처럼 경기를 즐기자’라고 마음을 내려놓은 뒤부터였다. 지난해 9월 열린 신한동해오픈 5위, 시즌 최종전 톱10 등 차분히 경기를 치러가다 보니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2021시즌 신인상까지 거머쥐었다. 김동은 선수는 그토록 바랐던 데뷔 첫해 우승과 신인상 모두를 품에 안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꿈만 같다.

### 자신과의 싸움

김동은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컴퓨터 게임으로 골프를 처음 접했다. 당시 또래 친구들이 즐겨하던 스포츠 게임 중 하나였다. 골프공을 클럽으로 쳐서 목표한 홀에 넣고, 몇 번 만에 넣었는지 타수로 우열을 가리는 게임이었는데 이상하게 재미있었다. 어느 순간 직접 골프를 배워보고 싶어 골프장을 찾았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와 집 앞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가서 바로 등록하고 레슨을 같이 받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골프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연습장에 나왔어요.”

차분한 성격의 김동은 선수와 한 홀 한 홀 주어진 조건을 극복하고 경기를 치러가야 하는 골프는 님은 점이 많았다. 골프선수가 되겠다는 목표가 스멀스멀 올라와 중·고등학교도 골프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했다. 그러나 골프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기에 주목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김동은 선수는 수많은 골프선수 지망생 중 하나일 뿐이었다.

“고2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거의 매일 연습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회 성적이 좋아지고, 제 이름도 조금씩 알려졌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막연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후회 없이, 제대로 한 번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지난해 5월에 열린 KPGA 코리안투어 군산CC오픈대회에서 우승한 김동은 선수(사진 제공 민수용 사진작가).

비거리 300야드의 장타, 깔끔한 스윙, 정교한 아이언 샷, 신인답지 않은 승부사 기질 등 골프선수에게 필요한 기술력과 판단력 같은 내공이 웅골차게 다져지던 시간이었다.

2016년 국가대표 상비군, 2019년 국가대표에 선발되면서 운 좋게 탄탄대로를 걸어왔다는 김동은 선수는 잊지 못할 경기로 데뷔 첫째 우승을 안겨준 군산CC오픈대회를 꼽았다. 5월이었는데 대회가 열린 4일 내내 강풍이 불어 참가한 선수들 모두 힘든 경기를 치러야 했다.

“날씨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나마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법을 찾으려고 고민했어요. 많이 인내하고,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이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 나눔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삶

우승의 순간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제가 진짜 우승한 거 맞아요?”라고 동료 선수들에게 되물었다는 김동은 선수.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다. 지난해 시즌 시작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꽃꽂이다. 경기가 없을 때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무료함도 달래고 마음의 안정도 얻기 위해 배우기 시작했다. 플라워레슨을 정기적으로 끊어 틈 날 때마다 꽃꽂이를 한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소재들을 다듬고 잘라 꽃다발을 만들고 꽃꽂이를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꽃향기를 맡고 있으면 심신이 안정 돼요. 무념무상의 시간과 마주하죠. 골프와 달리 성적을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서 마음 가는 자

리에 꽃을 꽂으며 그 시간을 즐깁니다.”

“재능 있다”는 평을 받을 만큼 꽃꽂이 실력도 골프 실력만큼이나 수준급이다. 김동은 선수는 직접 만든 수많은 작품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선물하며 주는 기쁨을 만끽한다.

김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5~6월에 활짝 피는 ‘작약’이다. 작약은 동전만 한 작은 봉우리가 활짝 피어나 풍성한 향기로 공간을 채우는 매력을 가졌다. 겹겹의 꽃잎 또한 아름답다. 김동은 선수는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작약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다. 김 선수는 그 바람을 이미 실천했다. 지난해 우승 상금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작년 12월, 서울아산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참 친구들과 뛰어 놀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가 기부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풍요로워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에 공감했고,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프로라는 무게감 너머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김동은 선수. 그는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선수로 남고 싶지 않아 매일 자신을 갈고 닦는다. 가까이로는 올해 국내 대회 다승, 아시안 투어 1승과 신인상이 목표라는 김 선수의 최종 목표는 세계 랭킹 1위다. 꿈은 크게 가지고, 마음먹은 것은 실천하고야 마는 김동은 선수이기에 그 꿈에 닿기 위한 여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슈퍼 루키를 넘어 슈퍼 스타로 발돋움할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무척 기대된다.  글 이지연



꽃꽂이가 취미인 김 선수는 작약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전했다.